

'무더위에도 빛난 최고품질 장수한우'

추석·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앞두고 최고 품질의 한우 선보여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지난달 28일 세계로마트(인천소재)로 출하된 장수한우가 등급관정결과 썩음 값이던 더위에도 불구하고 최고 품질의 한우를 생산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출하된 한우는 장수한우 TMR 사료 급여로 7두중 1++ 6두로 최고 등급의 한우를 생산해, 추석명절과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최고 품질의 장수한우를 선보이

고 있다.

또한, 수도권마트인 더제이마트 흥승북고문(前롯데슈퍼 상무)과 국민마트 김동용 영업 총괄부장 등이 장수한우 농가를 방문해 장수한우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보였다.

특히,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축산물 먹거리 제공을 위한 '무항생제 장수한우'에 대한 공급 능가 현상 및 시설 등의 사육기반을 돌아보았다.

무더위도 잊게한 고품질 한우의 생산지는 장수 번개면 소순배사장이다. 소순배사장은 장수군 한우협회 2대 지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 종축 개량협회 이사로 재임중이며, 장수군 유일한 한우 육종농가로서 한우개량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다. 무엇보다 30여년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암소 개량해오면서 장수군과 장수한우지방공사의 한우개량 사업에 적극 참여해 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

질 좋은 장수한우 생산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장수한우는 직영점인 장수한우명품관, 롯데슈퍼 외에도 장수군과의 2,000두 납품 협약에 따른 세계로마트, 국민마트, 더제이마트 등 수도권 30개 매장 등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한우 유통에 있어 소비자와 생산자 상생을 유도하는 원원파트너십 유통으로 소비자에게는 최고급 장수한우의 맛을, 생산자에게는 두당 25만원 상당의 브랜드 인센티브를 지급해 장수한우 농가의 부가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장수군의 장수한우 명품화사업과 2014년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설립으로 한우수정란이식, 우량암소 분양, 고품질 TMR사료 공급 등의 결과로 본다.

이에 장수군 최태현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장수군과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지속적인 한우개량과 브랜드 관리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으며, 한우농가 여러분의 하나된 모습만이 장수한우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원산지관리 전담자 인정교육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홍응웅)은 7일 우석대학교 전공관에서 제2차 원산지 관리시스템(FTA KOREA)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진원 내 전북FTA 활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교육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 판정 입증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방법을 교육하여 기업 내 원산지관리 체계 수립 및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에 필수적인 원산지관리 전담자 교육 이수점수가 부여되는 인정 교육으로 필요한 이수점수(품목별 10점, 업체별 20점) 가운데 6점이 부여된다.

경진원 관계자는 "FTA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서 FTA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역할이 컸고 이번 교육은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수출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전북FTA활용지원센터는 FTA 실무교육 FTA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FTA 특강 등 이미 10회를 진행, 이후에도 FTA 관련 교육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농산물 판매사업 연이은 '쾌거'

상반기 산지유통 종합대상 수상

전북농협은 3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서 열린 2018년 상반기 연합마케팅사업 추진 우수사무소에 선정, 농산물 판매 분야의 최고상인 '산지유통 종합대상'을 수상, 최고의 농산물 판매능력 임을 과시했다.

전북농협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산지유통 종합대상 수상 이후 다소 저조했으나 지속적인 농가 조직화 및 연합판매사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산지유통 종합대상을 탈환하는 결실을 맺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을 수상하는 등 최근 각종 상들을 휩쓸고 있다.

또한, 전북농협뿐 아니라 시군 조합 공동사업법인 부문에서는 김제지평선 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윤세천)이 산지유통 종합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겼는데 이는 통합마케팅사업에 대한 전북(도지사 송하진)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통한 지자체와 농협의 협력시스템 구축, 조직화 및 규모화를 통한 선별과 집중,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는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중심의 산지유통 정책추진 등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전북북도 삼라농정의 실현과 농가소득 5천만원 조기 달성을 위해서는 농산물을 재값 받고 잘 팔아주는 것이 그 시작이며, 이를 위해 농업인 조직화와 농산물 규모화에 역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지유통 종합대상'은 연합마케팅 활성화로 농산물 수직계열화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생산자조직 육성, 연합판매사업 실적 등의 계량평가와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 여부 등 비계량평가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원예사업부문 최고의 상이다.

/김영태 기자

롯데백 전주점, 팔공산 고랭지 장수사과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조환섭)은 폭염과 가뭄 태풍까지 기상 재해로 인해 멸절 사과작황에 비상이긴 가운데, 고랭지의 지리적 이점과 13년차 농립 식품부가 인정한 농업마이스터 슬봉농장 농업전문인 최봉기 농부가 재배한 최상급 사과를 추석 명절기간 동안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전북지역 (귀농, 귀촌) 농민들의 판로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를 3년전부터 진행, 추석명절을 한달 앞두고 전주점장, 본사비이어 관계자들이 우리지역의 유명 장수사과 농장을 방문하여 품질과 출하량을 확인했다.

최봉기 농부의 고랭지 장수 사과는 3월부터 지하층 명절 선물세트 특설 매장에서 만날수 있고 장수사과와 함께 다양한 우리지역 특산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박성진 롯데백화점전주점 식품가정 4차장은, "추석명절기간 동안 전북광역 한우브랜드(참예우, 단품미인한우)와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을 적극적인 판매로,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농수축산 품목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수산물까지 확대해서 지역 백화점으로써 상생의 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이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2차 일반인 실천창업강좌를 진행했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 성공해요'

전북대, 일반인 실천 창업강좌 창업인력 육성 견인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은 3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천 창업강좌가 우수 창업인력 육성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2차 일반인 실천창업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2차 강좌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관련 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ICT 기반 사물인터넷(IoT) Start-Up 을 주제로 창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펼쳤다.

전액 무료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선 전북뿐 아니라 타지역 일반인들도 참여해 이 분야에 대한 큰 관심

을 반영했다. 이번 교육에는 1차 교육에서 진행했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제에서 나아가 ICT기반으로 한 사물인터넷 분석 및 트렌드 전망, 전략 수립, 창업 기획 등 체계적 과정이 진행됐다.

아울러, '어떻게 4차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해 성공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사례 중심 교육과 함께 집중 멘토링'도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일반인들의 초기 수준의 보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개발할 수 있는 특허출원을 지원하고자 전북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추진해 많은 예비창업자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영태 기자

이번 강좌의 한 수료자는 "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 기술들에 대해 막연했는데 이번 강좌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고 창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어 매우 소중한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권대규 전북대창업지원단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대표적 기술에 대한 집중 교육과 이를 적용한 창업에 대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 사업을 더 연계 지원하여 우수 창업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체국 작은대학' 2기 운영

전북지방우정청은 3일부터 '우체국 작은대학' 2기를 개강, 수업을 시작했다.

'우체국 작은대학'은 우체국의 여유공간을 활용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주민들에게 교육, 소풍공간을 마련하고자 우체국사회공헌사업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안내에는 전주, 동전주, 군산, 익산, 완주, 진안, 고창우체국 등 7개 총괄우체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1기 과정은 군산시청, 군산시보건소, 전북 전주 완주 진안자원봉사센터, KT IT서포터즈, 한국정보화진흥원, 담소예술교육문화원 등이 협력하여 스마트폰활용 전래놀이 천연비누와 화장품만들기 수치침 등 19개과정에 216명이 수료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체국 작은대학' 2기는 스마트폰 활용, 수치침, 캘리그라피, 밸런스워킹, 발마사지, 손뜨개교실,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등 18개과정이며, 주1~2회 진행되고 과정을 마치면 수료증, 졸업증을 수여한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cs.or.kr *전자우편 : jvcs@hanmail.net